제205호 2010. 07.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제9대 충청북도의회 출범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七月 칠월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의 몸부림
내 젊음에 대한 안타까운 미련으로 남아
애리한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칠월 태양
깨어지고 부서지는 굴곡의 시간을
꽃잎 떨어진 자리에 매달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던 희망의 노래
생각의 가지에 음표로 매달려
아린 가슴을 더욱 아리게 합니다.

초록을 머금어 부풀어 가는 칠월
깨닫지 못한 내면의 갈등 다스리며
마음의 퍼런 응어리 풀어내고 있습니다.

심억수
• 출생 : 충북 괴산 생 • 등단 : 문예한국 시 부문 • 문학활동: 중부문학회 회장, 사)충북시를사랑하는사람들 회장, 충북문인협회 감사, 청주문인협회 부회장
• 수상 : 충북우수예술인상 저서 : 시 집 「물 한 잔의 아침」 수필집 「여물지 않은 곡식은 버려진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Contents

Vol.205_July 2010

4 개원사
5 축사
7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8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10 제8대 충청북도의회 주요 의정활동
11 제290회 임시회 주요내용
16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17 주요처리의안 | 제290회 임시회
18 우리고장 문화재를 찾아서 | 제천 의림지
19 법률상식 |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20 건강상식 | 아픈 허리에 신음하는 현대인
21 세무상식 | 2주택 비과세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용방법
22 창변객담 | 선량들의 허리와 손
23 의회 참여안내

●발행일 2010. 7. ●발행인 충청북도의회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전화 (043) 220-5123 ●FAX (043) 220-5119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개 원 사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상” 적립을 기치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

도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고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오제세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하는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른다섯 명 의원 모두는 방금 9대 의회의 문을 열며 155만 도민 앞에 손을 들어 약속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앞으로 4년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표를 통해 보여주신 성원과 질책은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단단하게 신발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이번 6.2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고 잔잔한 강물 아래로 흐르던 거대한 민심이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도민의 마음은 정치권에 쇄신을 요구하며 지방권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민심을 감동시키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신된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도민의 호된 질책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4년간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9대 의회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민심을 두려워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도의원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균형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의정을 만들고,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며 도민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 표를 달라고 호소하던 그 마음으로 도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셋째,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고 견제와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의회가 실력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으며, 우리 도정이 재정의 효용을 높이고 알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민을 생각하는 방향이 되어왔는지 따져 묻고 늘 관찰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잘못된 사고와 관습을 고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수행하는 역동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도민들은 우리 의회에 변화의 몸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뜻인 것입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으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의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충청북도의회의 역사를 새로 쓰고, 또 우리 충북의 진운(進運)을 밝게 열어나갈 자랑스런 일원이 되도록 합시다.

거듭 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7.

충청북도의회의장 김 형 근

축 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에 협력 당부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등원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김형근 의장님과 최진섭, 손문규 부의장님께도 축하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의원님들과 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공항 활성화, 제천한방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추진 등 핵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함은 물론, 새 시대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충북의 실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충북 발전의 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제9대 도의회를 출범하는 오늘, 천군만마를 얻은 듯 가슴이 벅차 옴은 의원님들과 함께 할 4년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저는 서민도지사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도정 목표를 ‘함께하는 충북’으로 정했습니다.

민선 5기에는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민과 밀착된 정책으로 충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보육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과 더불어 복지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복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외 유수기업을 지속 유치하고,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맛나는 서민경제에 매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부양하면서 지역 간 균형있는 재정과 행정을 실현하여,

12개 시·군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창의적인 문화예술을 과제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창달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각종 문화·체육·환경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위하여, 정책입안과 예산편성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시·군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의 물줄기를 넓게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러한 청사진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9대 도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7.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축 사

충북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 모색 당부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빈 여러분!

새로운 출발 앞에서 우리는 늘 벅찬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무성한 생명의 빛이 온 산하에 가득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의 큰 획을 긋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역 발전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희망찬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충북 교육가족 모두와 더불어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55만 도민의 고귀한 소명을 받고 충북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9대 도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 갈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김형근 의장님과 최진섭, 손문규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충북의 번영과 융성이 벅찬 기대감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함으로써 본도의 지방자치는 물론, 교육자치도 그동안 이루어 놓은 튼튼한 반석 위에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다원화·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교육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에 힘입어 충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리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도 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표로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창의적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의성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월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북학생 육성을 위해 사랑의 반올림 운동과 사랑의 효도전화 365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명학생교육원을 열어 배움의 공동체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은 관심·사랑·화합의 정신으로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가슴 따뜻한 인재육성에 힘쓰고, 학부모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교직풍토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교육세상'의 구현과 '가슴이 따뜻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충북교육에 더욱 깊은 애정을 갖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충북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 교육경영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의원님들의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본도 교육이 명실공히 세계 수준의 일류 교육으로 도약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큰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범하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0. 7. 7.

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충청북도의회는 2010년 7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 그리고 오제세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단체장, 집행부 실·국·원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서 35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4기까지 쌓아올린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와 그동안 연구·노력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김형근 의원이, 부의장에 최진섭, 손문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7월 8일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장에 박문희, 정책복지위원장에 심기보, 행정문화위원장에 최병윤, 산업경제위원장에 김봉회, 건설소방위원장에 권기수, 교육위원장에 최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김형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 역사의 한 굽이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엄숙한 순간에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의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여 견제와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회상 적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 장
김 형 근

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박 문 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 재 종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 도 경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김 동 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심 기 보 의원 (충주3)	박 한 규 의원 (제천2)	김 광 수 의원 (청주1)	김 도 경 의원 (청원2)
행정문화위원회	최 병 윤 의원 (음성1)	김 영 주 의원 (청주6)	김 양 희 의원 (비례 : 한나라당)	박 종 성 의원 (청주8)
산업경제위원회	김 봉 회 의원 (증평)	정 헌 의원 (괴산)	김 종 필 의원 (진천1)	김 희 수 의원 (단양)
건설소방위원회	권 기 수 의원 (제천1)	김 동 환 의원 (충주1)	김 재 종 의원 (옥천1)	이 광 진 의원 (음성2)
교육위원회	최 미 애 의원 (청주9)	장 병 학 의원 (교육4)	박 상 필 의원 (교육2)	이 광 희 의원 (청주5)

부의장
최 진 섭

부의장
손 문 규

위 원

김 영 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 양 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 한 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이 광 희 의원
교육위원회

장 병 학 의원
교육위원회

정 헌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노 광 기 의원
(비례 : 민주당)

손 문 규 의원
(영동2)

장 선 배 의원
(청주3)

유 완 백 의원
(보은)

정 지 숙 의원
(비례 : 민주당)

박 문 희 의원
(청원1)

윤 성 옥 의원
(충주2)

황 규 철 의원
(옥천2)

이 수 완 의원
(진천2)

임 헌 경 의원
(청주7)

임 현 의원
(영동1)

전 응 천 의원
(교육3)

최 진 섭 의원
(청주4)

하 재 성 의원
(교육1)

충청북도의회 전화번호

의장실 신관6층(F.5009)	220-5000~02
부의장실	220-5003~04
비서실	220-5005~08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신관5층(F.5019)	
운영	220-5010~15
입법	220-5171~73
정책복지전문위원실 신관7층(F.5029)	220-5020~24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신관4층(F.5039)	220-5030~35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신관7층(F.5049)	220-5040~44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신관2층(F.5059)	220-5050~54
교육전문위원실 신관3층(F.5069)	220-5060~64
의회사무처장실 신관6층	220-5100~02
총무담당관실 신관6층(F.5119)	220-5110~25
총무팀	220-5111~18
홍보팀	220-5121~25
의사담당관실 신관6층(F.5159)	220-5150
의사팀	220-5151~55
기록팀	220-5161~68
의회자료실 동관1층(F.5188)	220-5187
의회기자실 신관6층	220-4996

제8대 충청북도의회
290회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 마무리

2006년 7월 4일 개원한 제8대 충청북도의회는 민의에 기초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2010년 6월 18일 정오에 도청 구내식당에서 폐회연을 가지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제8대 의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위주의 의안 심사와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 하였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제290회 임시회까지 477일 동안의 회기를 운영한 결과 의안 처리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주민 위주의 의안을 506건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394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제8대 의회의 목표 중 하나인 연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1의원 1입법 이상 조례 발의를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한 결과 의원발의 건수가 7대 의회에서는 4년간 35건에 불과했으나 8대 의회에서는 4년 동안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2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여 제7대 의회보다 3.7배 이상의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 건의안 등 32건의 건의문 및 결의문 등을 대통령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특히, 지역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의문·성명서 채택, 각종 간담회 및 관련회의를 개최하여 155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제290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전체의원 연찬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제8대의회 폐회연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전체의원 연찬회와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의회사무처 직원 농촌일손돕기

충청북도의회사무처는 5월 28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안우영씨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찾아 적과를 실시하였다.

제12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충청북도의회는 6월 9일과 6월 17일 각각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주 직지·봉명초등학교 학생과 보은·단양중학교 학생, 지도교사, 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2·13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4년째 맞이하는 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들이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의정활동 사항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 6. 8. ~ 6. 18.

의회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

2008년 7월부터 2년간 활동해온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가 활동을 마감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해 최광옥 부위원장, 강태원, 권광택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주로 의사일정 협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처에 속하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심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종합심사하여 총 67건의 안건을 협의 및 심사하였다.

특히 지난 3월 8일 제15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충북에서 개최하여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타 시·도에 홍보하기도 하였다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이영복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수석상임위원회로써 의회운영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제9대 의회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행정소방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 6. 8. ~ 6. 18.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등 의안처리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등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 추진 및 녹색성장 체계화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고,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및 조직·제도 변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다.

특히, 제8대 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도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및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물론 대정부 차원에서는 충북도정에 힘을 실어주어 동반자로서의 역할수행에도 소홀함이 없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교육사회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 6. 8. ~ 6. 1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례안 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인력을 파견 운용하는 내용으로 향후 교육위원을 보좌하기 위한 의정활동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단편적인 신고보상금 제도보다는 전체 공직풍토를 개선하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 6. 8. ~ 6. 18.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업경쟁력 확보에 최선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제8대 의회 하반기(2008년 7월 2010년 6월)에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 상황에서 도내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통상국의 청년인턴제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적극 지원하였고,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쌀 소비대책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농촌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9월 도내 농업인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 단체가 제기한 농업예산의 확충,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방안 수립 등 총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의를 벌여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농민을 돕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올 4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전국적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제에 모든 심혈을 기울일 것, 축산농가에 현실적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영웅(옥천2)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급증,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파괴된 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례 시행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 더 많이 홍보되고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건설문화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 6. 8. ~ 6. 18.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특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도의회와 집행부, 도민 모두가 한마음을 이루어 전 세계에 충북을 알리고 글로벌 시대의 주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녹색기반의 내륙첨단산업벨트 및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시군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시군간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으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도립예술단 창단과 다양한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수해피해 현장 및 수해상습지 현장 등 재해지역과 각종 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도민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건설문화위원회는 지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충청북도의회 제8대 의정활동을 마쳤다.

제290회 임시회 주요안건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성장 체계화 및 기반 마련

[주요내용]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및 조직·제도 변경에 따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 추진

[주요내용]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9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조직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일괄 개정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06.12.20. 개정, 부칙에서 '10. 7. 1.설치토록 규정)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상위 근거법령 명시 문구 중 「지방자치법」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문구 추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외에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문구 추가
●목적조항(제1조)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 문구 수정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단기간 해소가 곤란하므로 2010. 6월말로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2011. 4. 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역경제 및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 대상 : '10. 2. 11. 현재 미분양 주택을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율 :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법률 제10143호, '10. 3. 22.)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을 변경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 등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의결

[제안이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추어 이 조례 폐지

[주요내용]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우리고장 문화재

제천의림지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다.

여은희 | 충청북도문화관광해설사

신록 가득한 7월~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시원한 계곡을 비롯하여 멋진 휴가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천은, 멋진 풍경과 역사성으로 만들어진 제천10경을 비롯하여 60여점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 충절의 고장답게 공신과 의병의 영정을 모신 영당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농경문화의 발상지이며 주변의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포함하여 2006년 12월 명승 20호로 지정된 의림지(義林池)와 제림(堤林)은 명소와 문화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의림지는 기록상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시축하고 700년 뒤 현감 박의림이 축조한 것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벼농사 발달 과정 연구와 아울러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정설로 보고 있는 수리시설(인공저수지)입니다.

둘레는 약 1.8km이며, 면적은 약 158,677m^2, 담수능력은 6,611,891m^3, 수심은 8~13m로 몽리면적은 289.4정보이며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더불어 3대 수리시설로, 농업 기술 발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리능력을 갖춘 현존하는 저수지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쓰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림지라는 명칭은 원래 임지라 불려졌던 것을 고려 992년 군현의 이름을 개칭할 때 제천의 지명을 의원 혹은 의천이라 한 것에서 유래되어 임지 앞에 의자를 붙여 의림지라 칭하게 되었다 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만남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옛것과 새로움을 만나게 해 주는 매력 가득한 의림지를 멋지게 만나려면 영호정(향토문화재자료 12호)과 어우러진, 200~300여년의 수령을 자랑하며 특이하게 고유 관리번호가 기록된 명찰을 달고 있는 노송과의 만남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명찰은 제림(堤林)을 포함하여 명승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소나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함인데 모두 183그루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경호루(향토문화재 자료23호)를 지나 절벽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 위의 용추폭포를 건너 명소화사업으로 설치된 인공폭포와 산책로를 따라 둘러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특산물로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으며 열을 내리게 하고 인체에 쌓인 100여 가지의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순채가 있는데요. 현재 전골 및 불고기, 순채오미자 차 등 순채를 이용한 먹거리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어. 원이름은 '빙어'로 조선시대 철학자 서유구 선생이 지은 '전어지'에서 "얼음이 얼면 잡고 얼음이 녹으면 보이지 않는다"하여 얼음빙(氷)자에서 유래 되었다 합니다. 회어(膾魚)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명물로 한겨울 눈 쌓인 의림지에서 공어낚시로 추억의 풍경을 만들어 보기를 권하며 끝으로 가야금의 대가인 우륵 선생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바위 '우륵대'(제비바위, 연암, 용바위)의 완벽한 복원으로 우륵선생이 직접 마시던 모습으로 탄생한 '우륵샘'의 물을 맛보며 우륵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행전문가 한비야씨는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원한 여름에 의림지를 만나거나, 9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열리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함께 제천의 의림지를 만난다면 WHO지정 한방건강도시 제천의 참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 상식

알아봅시다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 세대가 되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속으로 인해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 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한 주택 중 1주택만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개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①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 ⇒ ②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 최연장 순으로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용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 발행 세액(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공제해드리며,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발행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법률 상식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전희태 | 변호사 (법무법인 주성)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시기를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돈을 빌린 사람의 자금 사정 악화,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갚기를 거절하면 결국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지에 관한 상담을 자주 하게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그 후 우연히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는 데도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우선 돈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다른 곳에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나마 돈 갚을 사람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승소 판결문으로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돈 갚을 사람이 무일푼이라면 위 판결문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줄 때 재산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담보를 설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는 재판은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재판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재판 없이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경매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렸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행방을 감추어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돈 받을 사람을 해치는 것이어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는 것이 좋고, 차용증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자필로 쓰고 반대로 영수증은 돈을 돌려받은 사람의 자필로 쓰게 하는 것이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실, 갚은 사실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됩니다.

- 돈 빌린 사람의 부동산 가압류
-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 돈 빌려줄때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설정
- 공정증서 작성
- 은행계좌를 통하여 거래
- 차용증(빌려가는 사람)과 영수증(돈을 돌려받은 사람)을 자필로 받을 것

건강 상식

아픈 허리에 신음하는 현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현대인들에게 허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신체 부위이다. 왜 그럴까? 허리는 자세마다 받는 하중이 틀린 데, 실험에 의하면 똑바로 누워 있을 때 25kg, 바로 서면 100kg, 책상에 앉으면 140kg의 하중이 걸린다고 한다. 올바른 자세로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몸이 불편해도 자세는 올바르게

먼저 목을 쭉 빼고 컴퓨터를 보는 ET자세를 멀리해야 한다. 모니터 앞으로 계속 다가갈수록 C자형을 이루어야 할 목 곡선은 'I' 자로 펴진다. 스프링처럼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던 경추의 C 커브가 일자목이 되면 외부 충격이 척추와 머리로 직접 전달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또한, 의자에 허리를 쭉 펴고 앉아 다리를 쭉 뻗는 'PC방 자세'도 주의해야 한다. 'PC방 자세'는 일자 허리를 만들고, 척추의 퇴행을 앞당긴다. 또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는 '꽈배기 자세'는 습관으로 굳어질 경우 골반에 변위가 생기면서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요통을 유발한다.

멋있어 보이려고 다리 꼬지 마라

다리를 꼬고 앉거나 꽉 조이는 부츠를 신고 있으면 마치 꺾인 빨대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방해한다. 잠시 동안 편한 느낌이 들지만 두 넓적다리의 높이가 달라져 골반과 척추에 부담이 생긴다. 또한 주변 혈액이 잘 돌지 않고, 신경이 압박을 받아 요통과 정맥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맥류를 예방하려면 다리를 꼬지 말고 하이힐을 되도록 신지 말아야 하며, 틈틈이 발목 운동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절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무실에선 구두 대신 편안한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이 좋다.

허리, 턱, 팔꿈치 좌우로 정렬

사람들 중에는 목을 앞으로 빼고 등이 휜 원숭이형 자세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숭이 자세는 목, 허리, 척추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뱃살도 늘린다. 사람의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형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한다.

무릎 관절은 엉덩이보다 약간 올라간 자세가 좋다. 특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약간 앞으로 당기며, 팔꿈치는 키보드와 수평을 유지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1시간에 한번은 일어나 다리를 쫙 펴주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이때 바깥 공기를 쐬며 가볍게 거닐거나 맨손체조로 온몸을 쭉쭉 펴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준다.

현대인의 허리관리 요령

* 1시간에 한번은 일어나서 허리 피로를 풀어준다.
* 의자 등받이에 엉덩이와 등을 대고 앉는다.
*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삼간다
*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춘다
*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창변 객담

선량의 무거운 짐

안수길 | 소설가

선량(選良)은 여럿 중에 뽑힌 인재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엔, 유권자가 직접 뽑는 인재가 국회의원뿐이었으니, 그때의 선량은 국회의원을 달리 일컫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엔, 기초·광역자치단체 수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들까지, 유권자가 직접 뽑으니, 뽑힌 그들 모두가 선량이라 해도 그른 말이 아니다. 봉건 군주시대 없던 선량이 민주주의 덕에 탄생하고, 지방자치 덕에 양산된 셈인데, 그만큼 민의(民意)가 지방행정이나 국정에 반영될 통로가 넓고 다양해졌으니 백번 좋은 일이다.

6.2지방선거로 많은 선량이 물갈이 됐다. 지난 임기 동안 참다운 선량으로 지역발전과 유권자 복리를 위해 열심히 뛰었으나 다시 뽑히지 못해 안타까운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뽑히거나 전 선량을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은 분들은 큰 기쁨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피를 말리는 선거전에서 승리, 당선된 분들에겐 그 영광과 기쁨이 복권당첨처럼 우연히 가져다준 행운이 아니다. 남다른 선거전략이 주효했던 까닭도 있겠지만, 평소 학식을 닦고 덕망과 경륜을 쌓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지역유권자들의 신망을 받아 온 덕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들은 영광과 기쁨만 만끽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무거운 짐이 양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주민복리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과를 내도록, 임기 내내 땀 흘리며 발품을 팔고 때로는 밤잠도 설치며 고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짐이 무겁다. 필요한 권리와 권한도 부여됐다. 그러나 그 권리와 권한이 권력의 개념 쪽으로만 치우쳐선 곤란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뽑힌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03명 중, 110명이 법정에 섰고, 그중 31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단다. 유죄는 인정되나 당선무효형에는 이르지 않아 자리보전을 했던 이들까지 합치면, 청렴약속을 어기고 민의를 배반한 이들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과문한 탓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도하차 내용은 알지 못하나, 그쪽 역시 청정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중도하차한 이들은 권리와 권한을 민의해결이나 행정효율을 위해 행사하기보다. 사익을 위한 권력 쪽으로 무게를 두고 행사한 탓일 것이다.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난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로 부임하러 가던 중 창읍이란 고을에서 묵게 되었다. 창읍 현령 왕밀이 밤중에 찾아와 10금(金)을 내놓았다. 양진이 이를 거절하자 왕밀은, 양진이 소문날 것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은근한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밤중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진은 노여운 소리로 왕밀을 이렇게 나무랐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가?"

소위 천지(天知), 지지(地知), 여지(汝知), 아지(我知)를 이르는 4지(四知)의 유래로, 후한서 양진전에 나오는 얘기다.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으나, 가끔 잊고 사는 이들이 많다.

뽑혀서, 영광과 명예를 얻고 그에 따라 짊어진 선량들의 무거운 짐 속엔, 청렴의무와 함께 공약 이행의 책임이 들어 있다. 사지(四知) 경구를 잊고 청렴을 버리면, 하늘과 땅과 나와 너를 속이는 사기(四欺)요, 공약 이행의 책임을 게을리하면 유권자를 속이는 사기(詐欺)다.

선량, 뽑히기도 어렵지만 역할수행을 제대로 해내기는 더욱 어려운 자리다. 뽑아 달라고 수천 번 수만 번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아 흔들던 수고가, 목이 쉬도록 반복하던 호소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더 굽히고 더 숙이고 더 많이 잡아 쓰다듬어야 하는 건 물론, 입 대신 귀를 열어 민의의 소리를, 호소를 듣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밤잠 설치는 날도 많을 것이다. 참으로 고행이지만, 자청해서 위임받은 일이고 서약한 일이다. 그러나 거드름 빼고 사지(四知)를 유념하여 지역과 유권자를 위해 신명을 다하면, 사기(四欺)나 사기(詐欺)와는 벽을 쌓고,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명예가 오래 갈 것이다.

청원안내

청원서 제출방법
청 원 제 출 사 항
청 원 문 의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 · 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청원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 · 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청원문의

- 의사담당관실 : ☎ (043) 220-5151~5155

민원안내

진정서 등 제출
민 원 제 출 방 법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의사담당관실
- 인 터 넷 : http://assem.cb21.net 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 (043) 220-5151
- 팩 스 : ☎ (043) 220-5159

방청안내

방 청 권 교 부
방 청 권 신 청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 (043) 220-5155

2010년 9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로 오세요!

2천년의 임상경험을 자랑하는 신비의 전통의학, 한방!

그 한방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

충청북도 제천에서 마음껏 즐겨보세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2010 World Oriental Medicine-Bio EXPO in Jecheon, Korea

- 행사기간 : 2010. 9. 16 ~ 10. 16
- 행사장소 :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벨리 일원(532,000㎡)
- 행사주제 : 한방의 재발견
- 후 원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의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82(문화동) 전화 (043)220-5123 http://assem.cb21.net